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지원 1년 성과와 과제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윤덕)가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기와 등 건축자재 지원을 시작하는 것은 작년 10월 27일부터다. 지난 1년간 총 12차례에 걸쳐 기와, 단청재료, 건설 장비 등이 북측에 전달돼 남북불교 교류사상 사안별 교류로는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영통사 지원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았다.

남북불교 교류채널 넓혔다

●25억원 규모 기와·단청재료등 18톤 트럭 160대 분 발송

지난해 10월 첫 기와 지원이 시작된 이후 천태종은 영통사 복원을 위해 기와 46만장을 비롯해 단청재료 26톤, 건설장비 등 18톤 트럭 160대 분량의 물량을 대거 투입했다. 이번 달에도 두차례에 걸쳐 북측에 건설장비를 비롯해 건축마감재를 전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당초 예상했던 10억원의 2.5배인 25억원에 달했고, 천태종 스님 57명을 비롯해 연인원 400여명이 북한을 다녀왔다.

영통사 복원불사는 1998년 발굴 작업에 이어 2000년부터 시작했다. 총 29개동의 전각 복원과 진입로 개설공사가 진행된 대형불사로 꼽힌다. 그동안 대북 불교교류에 소극적이던 천태종이 영통사 복원 불사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천태종 조대각사 의천 스님의 출가사찰이라는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류채널 조물려서 조정협으로

천태종의 영통사 복원 지원은 물량적인 교류 외에도 남북불교간 교류채널을 다양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조선불교도연맹으로 한결되어 있던 기존 교류채널이 북측 대외창구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경제협력위원회로 확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 지원사업은 남북불교 교류채널을 넓히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영통사 전경.

대됐다. 형식적으로는 영통사복원위원회가 전면에 나왔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조선경제협력위가 이끌었기 때문이다.

천태종이 지난해 12월 통일부로부터 통일협력사업 및 사업자로 승인 받아 자체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도 남북불교 교류를 활성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일시중단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천태종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북측의 신뢰를 얻어내 교류를 재개시켰다. 이로 인해 남북불교교류의 무게중심이 조계종

에서 천태종으로 바뀐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원만 하고 성과 못얻나'

그러나 개성 영통사 복원이 끝나는 내년 봄 이후 천태종의 대북 교류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측이 지원은 계속 받으면서도 지난 8월 개최됐던 국제학술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한데 이어 올 11월 목표로 했던 낙성시기를 진입로 공사를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천태종의 요구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천

태종의 대북교류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성지순례 등 후속교류 이어져야

천태종은 '지원만 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남북협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북불자들의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나 개성지역 관광, 인근 유적지 공동 발굴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수반될 때 교류의 명분을 쌓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여기에 종단·단체가 개별적으로 북측과 접촉하는 현 남북 불교계의 대북교류 시스템을 협력과 정보교류를 원활히 하는 체제로 변화시키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무원 스님(천태종 사회부장)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데 북측도 공감하는 만큼 일회성 교류로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으면서 남북불교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한·중·일 고승초청 보살계 수계법회

관음종, 8일 장충체육관서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개산조 태허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10월 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를 한·중·일 3국의 대덕 스님과 모든 불자들이 참여하는 화합법회로 열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측은 전계 아사리에 조계종 전계대회상 보성 스님(송광사 방장), 갈마 아사리에 만봉 스님(봉원사), 교수 아사리

에 파계사 영산율원장 월우 스님을 확정했다. 중국측에서는 중국불교협회 상인부회장 성취 스님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일본측에서는 다카하시 류덴(진언종), 미야바이시 쇼겐 일한불교교류협회 회장 등이 대표로 참석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등 각 종단 대표들도 내인으로 참석해 수계 의식을 지켜볼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한국조동종, 조동선학논총 출간

조동선의 사상과 역사, 이끌어 온 스님 등을 총망라한 책이 출간됐다. 한국조동종총본산(총무원장 학봉)은 10월 9일 오후 2시 서울 불교방송국 대법당에서 <조동선학논총>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한국조동종의 법인체인 한국불교조동선림이 간행한 이 책에는 조동선맥을 연구해 온 금당 스님의 '조동종원류결(曹洞宗源流訣)'을 비롯해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의 '조동종의 목조선 연구', 김영두 원광대 교수의 '나말여초의 조동선', 홍수평 중국 남경대 교수의 '조동선 사

상 연구' 등 8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조동종조인 풍산 양계(洞山良介) 선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조동선맥과 조동종의 역사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한국조동종 총무원장 학봉 스님은 간행사를 통해 "조동종은 조계종과 더불어 선종의 양대산맥"이라며 "이엄 진철(利嚴 眞徹) 선사의 원찰인 중국 운가산 진여사에서 단절되었던 선맥을 복원한 한국조동종은 조동선맥을 널리 드러내기 위해 '조동선학논총'을 간행했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교구합창단 연합회 결성

진각종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등 4개 교구합창단은 최근 대구 진각문화관에서 '(가칭)종단 교구합창단 발전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는 한편, 초대 회장에 서울 진각합창단장 대성지 보살을 선출했다.

'종단 교구합창단 발전을 위한 모임'은 앞으로 교구합창단간 정보 교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기획, 서원가(찬불가) 보급, 연합합창제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인사서 연수교육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0월 17~20일 양산 대인사에서 불기 2548년 종도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조용길 동국대 교수의 특강을 비롯해 구족계 수계산림, 종무행정 안내 등으로 진

행한다. 앞서 미륵종은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김해 관음정사에서 행사교육 및 수계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로위안 문화예술제

태고종 대구 청통사(주지 보성)는 10월 7일 오후 2시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구·경북지역 어르신 25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경로위안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사라져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문화예술제는 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보존회 소속 어르신들의 영산재 시연을 비롯해 삼보 연합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청정 무용단의 부채춤 공연, 영남민속보존회의 회신곡 등 민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053)656-5266

본원종 창종 15주년 기념법회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스님 등 종단 관계자들이 9월 23일 서울 연화정사에서 열린 창종 15주년 기념법회에서 케익을 자르고 있다.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9월 23일 서울 평정동 연화정사에서 창종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종단 원로·중진 스님과 총무원 집행부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본원종은 창종 이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종단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다"며 "우리 사회와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종도들은 투철한 애종심과 확고한 종단관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본원종 총신대회 신장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본원종이 불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는 승가와 종단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각종 19~20일 스승강공 총지종 18~21일

진각종과 총지종의 가을 스승강공 일정이 확정됐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0월 19~20일 서울 하월곡동 종인원에서 추기스승강공을 봉행한다.

이번 스승강공은 '사지사력 활동으로 생활 중에 각(覺)합지라'를 주제로 예참, 주제강론, 교법강론 등으로 1박 2일간 진행된다. 특히 창종 초기에 활동한 1세대 스승들의 교화경험과 수행, 신행활동 등을 듣는 설법시간이 마련됐다. 강공 기간 중에는 전법관정불사를 비롯해 △기로 진원식 △종정보고 △선대열반스승

추념발사 △제339회 정기중앙종의 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10월 18~21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제63회 추계강공을 실시한다.

효강 종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강공 기간중에는 최고의결기구인 원의회의와 사회복지재단·유지재단 이사회, 제90회 정기중앙종의 회, 승단총회 등이 개최돼 불상 불안에 대한 토론을 비롯해 교회활성화, 사회복지사업 확대, 도제양성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국민화합을 위한 수륙대재 및 유등축제

일시 2004년 10월 15일(금) ~ 18일(월) 4일간

장소 금강유원지(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I.C)

문의 국민화합을 위한 수륙대재 및 유등축제 추진위원회
043-732-5560 · 018-453-8453
043-273-6128 · 011-492-8931

| 주최 | 국민화합을 위한 수륙대재 및 유등축제 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충청북도, 옥천군, 충북불교총연합회, 옥천불교사암연합회